한국학연구 제76집 | 821~864쪽 | 2025.2.

김소월 · 인민의 애수 · 애국주의* **

최현식***

〈차 례〉

1. 북한에서 김소월의 시적 위상과 가치
2. 소월 시 읽기의 이념화 과정: 해방기~전후 복구기
3. '천리마시대' - '주체문학' 형성기 소월 시의 등락
4. 1980년대 소월 시의 복권과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의 편입
5. 2000년대 북한의 소월 시와 정본-정전화의 미래

[국문초록]

이 글은 1948년~2010년까지 북한에서 진행된 김소월의 시의 가치화 과정을 검토한다. 먼저 북한 문단과 인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된 소월 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북한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추가된 소월 시가 무엇인지도 검토한다. 북한문단은 소월 시에서 향토애와 애국주의, 나라를 빼앗기고 님을 잃은 상실감과 애수의 정서를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의 독재화에 따라 김소월의 시는 '진보적 사실주의'에서 '주체문학'을 위한 도구적 역할로 급속하게 주변화되어 갔다. 그 결과 소월 시는 김일성 업적 중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 아래 배치된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 그 역할과 가치를 조정받게 되었다. 이는 김소월의 시가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자주성'과 '자주적인 인간의 문제'의 교양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김소월의 시는 1950년대부터 민족 고유의 정서와 생활을 민요적 전통과 율격 아래 뛰어나게 그려냈다는 고평을 계속 받아왔다. 「초혼」, 「진달래꽃」 등 10여 편의 시가 작가들과 인민들이 읽어 마땅한 '정전'의 지위를 한 번도 잃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주제어] 김소월, 정전, 정본, 김일성 유일체제, 애국주의, 인민의 애수, 주체문학

---

* 이 글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저술출판지원사업『남북한 공통 - 시 읽기의 탄생』(NRF-2024S1A6A4020039)의 일부로 작성되었음.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북한에서 김소월의 시적 위상과 가치

시인 김소월(1902~1934)의 연대기를 짚어보면, 2024년은 그가 삶을 마감한 지 90년, 2025년은 근대의 문학적 사건일 시집『진달래꽃』이 출간된 지 100년 되는 해이다. 일제의 식민지 폭력과 억압이 거세던 1920~30년대, 그의 첫 시집과 죽음은 어떻게 기록되고 평가되었을까. 당시『동아일보』는 '신간 소개'에서 "『진달래꽃』(김소월시집)"이 1925년 12월 26일 '매문사'에서 발간되었음과 거기 실린 주요 작품, 정가 등을 함께 알렸다.[1] 한편 1년여 지난 시점에서 한 비평가는 "순정적인 그 시상, 부드러운 정서, 민요적 풍부한 리듬"[2]으로 조선시단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 빛나는 성취를 스스로 내려놓은 서러운 요절을 두고『조선일보』는 "청년민요시인 소월 김정식" "24일 아침 뇌일혈로 급작히 별세"라는 부고와 더불어 "일즉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을 발행하야 우리 시단에 이채를 나타내이든 재질이 비상튼"[3] 시인이었다는 문장으로 각별한 애도의 정을 표했다. 또한 소월의 사망 1년 뒤 1936년 1월 28일 추도회가 열렸고 발기인으로 이광수, 김동인, 김억, 김동환, 김기림, 박팔양, 정지용 등이 이름을 올렸다는 알림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8.15 해방 후 3년 만에 몰아닥친 분단체제의 획정은 남북한에서 소월 시의 기념과 독법, 해석에 매우 이질적인 경로를 생산하게 된다. 여기서는 북한의 현장을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 곧 '선군(혁명)문학' 시대까지의 정전-정본화 과정과 그 현장을 엿보고자 한다. 에둘러 갈 것 없이 현재 북한에서는 김소월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치화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인 '문학 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어떨까.[4]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도 각종 문학 사전을 시인과 독자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의식과 지향성, 이를테면 국민 의식, 민족 정서, 정치 · 문화적 이념의 집단적 설파와 내면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

1) 편집부,「신간 소개」,『동아일보』1926년 1월 6일자.
2) 김성근,「조선현대문예개관 (4)」,『동아일보』, 1927년 1월 4일자.
3) 편집부,「청년민요시인 소월 김정식 별세」,『조선일보』1934년 12월 27일자.
4) 이지순은「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 - 남북한 문예사전을 중심으로」(『비평문학』70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를 통해 소월 시에 대한 평가의 양상과 변화 과정을 살폈다.

보를 제공하는 문장과 장치로 활용 중이다. 그렇기에 북한 문학 사전에서의 '김소월' 안내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한 그의 대표 시들이 "구속력 있는 텍스트로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권위"[5]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데에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소월의 시에는 님을 잃은 설움, 님과 이별한 괴로움과 님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나라를 잃은 우리 인민의 설움이 반영되어 있다. (…중략…) 여기(「초혼」 - 인용자)서는 조국을 빼앗긴 설움과 통분, 잃어진 조국을 애타게 그리는 마음이 절절하게 노래되어 있다. 그러나 「초혼」을 포함해서 그의 시에는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의욕이나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허무감을 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문예상식』(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160~161쪽)

북한 정권 성립 후의 맑스-레닌주의 미학에서 1960년대 이후 주체문예론으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그 지위와 의미 평가의 부침이 적잖았지만, 김소월 서술에서 일관되게 강조된 가치체계는 인도주의, 인민성, 애국주의, 민족적 형식, 민족적 특성 등이었다.[6] 김소월이 다시 등장한 『문학예술사전』(1988)에서는 "풍부하고 섬세한 서정과 음악적인 운율, 아름답고 간결한 시어와 정교하고 평이한 형식"[7] 때문에 인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으로 기술된다. 당연히도 이 형식들은 사회주의 건설과 김일성 유일주의에 복무할 수 있도록 발명 또는 재구성된 예의 가치들을 빛내기 위한 장치들로 기능했다. 그런데 북한문단에서는 김소월의 정서를 설명할 때 '낭만'과 '애수'를 빼놓지 않았다. 두 개념은 무엇보다 '나그네'로 대표되는 김소월의 떠돎과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렇지만 집단성과 투쟁성이 강조되는 북한에서 그것들은, 인용문 말미에서 보듯이, '노동계급'의 혁명성, 인민성, 당성의 지평으

5) Gerald L. Burns, "Canon and Power", *Canons*.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민음사, 1997, 350쪽 재인용.
6) 이상숙, 「북한문학 속의 김소월 1」, 『한국학연구』 6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28쪽.
7) 편집부, 『문학예술사전』 (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315쪽.

로 올라서지 못한 소월의 사상적 · 미학적 한계를 지시하기 위한 부정적 맥락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방식의 소월 시 한계 비판, 혹은 성취의 부분적 유보는 '정전(正典)' 구성과 확장의 원리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정전, 곧 캐논(canon)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 투쟁에 승리한 계급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정전'은 그것 자체가 갖는 속성과 힘들을 바탕으로 독자 대중의 선택을 이끄는 단계를 넘어선다. 오히려 권력과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적 형식으로 '정전'을 발명하고 재구성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8] 이 말마따나 과연 김소월(의 시)도 북한 권력체제에 합당한 '사회주의적 · 민족적인 것'을 절대화하되, 그것을 남한과의 체제 경쟁의 승리로, 또 혁명전사로서 인민을 그 싸움에 동원하는 '국가-민족주의 기획'[9]의 문학적 징표이자 무기로 계속 또는 필요에 따라 호명되어 갔다. 이를 기억하며 지금부터 북한에서 김소월이 어떻게 가치화되고 '정전-정본화'되어 갔는가를 몇 시기로 나누어 그 이념형의 변화 과정과 함께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될 것이다.

2. 소월 시 읽기의 이념화 과정: 해방기~전후 복구기

1)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소월 시의 이념적 호명

'8 · 15해방'은 일제 잔재 청산, 새로운 민족문화 건설, 보편적 국민국가(남)나 인민국가(북)의 수립을 시급한 과제로 밀어 올렸다. 이런 시대적 맥락은 혁신의 민족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국민(인민)에게 내면화할 수 있는 '정전'에 준하는 어떤 소월 시의 가치화를 필연

8)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351쪽 및 344쪽.
9) 이에 대해서는 이명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 연구」, 『독서연구』 20호, 한국독서학회, 2008 전반을 참조.

적으로 요청했다. 이 과제에서 선편을 쥐었던 이는 남한의 좌파 문학운동에 참여 중이던, 즉 1946년 3월 북한에서 조직된 '조선작가동맹'에 아직 가담하지 못했던 시인 오장환이었다. 실제로 그는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이하 '문맹')과 '문화공작대'에서 좌파 문학운동을 전개하다 1947년 10월에서 1948년 2월 사이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작성한 김소월론 세 편은 1947년 1월~1948년 1월 사이 발표되었다.[10] 그는「초혼」과 시집『진달래꽃』에서 과거에 무너진 조국, 사모하던 여인, 먼 거리의 어버이에 대한 "애절한 공감"을 먼저 읽는다. 물론 그 공감의 정서는 사적 애상(哀傷)에서 찾지 않고 "숨길 수 없는 피압박 민족의 운명감"과 "피치 못할 현실에의 당면"(「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 곧 조선인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성'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 '민족성'은 시집『진달래꽃』으로 대표되는 지순한 서정과 동심의 세계, 그리고 민요풍의 정서에 더해 그것조차 훌쩍 뛰어넘는 아름다운 운율의 창조와 언어의 살짐(「소월시의 특성」)에 의해 더욱 빛났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다만 그가 보기에 소월은 시시각각 더러워지는 자신을 그 더러움 속에서 건지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으로써 시와 삶 모두에서 "바른 역사의 궤도에서 자아를 지양하려는 나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자아 최고의 무자비한 형벌'(「자아의 형벌」)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이 형벌의 부분을 빼고는 오장환은 김소월의 삶과 시를 "직접 정치적인 행동은 없었다 하나 그 민족적인 양심만은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으로 명제화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내건 소월 시가「초혼」,「무덤」,「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제이 · 엠 · 에스」,「먼 후일」,「진달래꽃」,「금잔디」,「가는 길」,「실제(失題)」,「찬 저녁」,「비난수하는 마음」,「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산유화」였다. 조만식을 예찬한「제이 · 엠 · 에스」나 상실감이 두드러지는「실제」를 제외한 시들은 예나

10) 제목을 예시하면「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 - 소월시의「초혼」을 중심으로」(『신천지』1947년 1월호);「소월시의 특성 - 시집『진달래꽃』의 연구」(『조선춘추』1947년 12월호);「자아의 형벌 - 소월연구」(『신천지』1948년 1월호)이다.

지금이나 북한문단의 관심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장환이, 남한의 애송작을 포함해서라도, 소월 시의 '민족성'과 '정전화'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엿보았다는 평가[11]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 걸맞은 건국의 열기와 '신인간'의 요구로 들끓던 평화적 건설기, 곧 1948년을 전후한 때 김소월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저점을 찍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시가 봉건사회와 식민지 현실을 벗어나 제반의 '민주개혁'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새 인간',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에 충실한 '공민'의 교양과 성장[12]에 적합한 언어-감정인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의심의 눈초리는 소월을 도식주의적 관점과 태도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소월은 한 사람의 사실주의 시인이 아니라 소시민적인 인텔리로, 다시 말해 작품의 진보적 경향성과 투철한 현실 반영 능력이 부족한 소시민적 세계관[13]의 시인으로 평가받았던 듯하다. 이를테면 리정구는 애초에 김소월 본래의 세계는 "진달래꽃처럼 아름답고 금잔디처럼 평화로운 세계"였으나 "잃어진 것을 찾는 길"에 나서면서 무기력한 탄식만 울울한 떠돎의 세계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초혼」 등을 울리는 님에 대한 '절규'를 "애수와 통곡과 절망과 오뇌"의 부산물로 평가 절하했다. 잃어진 세계와 우울한 정서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의 불행에 대하여 그것을 광대한 민족적 계급적 환경과 조건에서 역사적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토를 달면서 말이다.[14]

그러나 소월의 서거 20주년을 맞이한 1955년 12월, 그의 시에 대한 역사화와 가치화는 말 그대로 '급변'한다. 시인의 황망한 요절에 대한 안타까운 애도와 시적 성취의 탁월함에 대한 전폭적 인정은 오히려 표면적인 까닭이었을 것이다. 북한문단은 한국전쟁기를 거쳐 전후 건설 복구기에 돌입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제기한다. 하나는 무덤, 죽음, 절망,

11) 이명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 연구」, 312~313쪽.
12) 오성호, 『북한시의 사적 전개과정』, 경진, 2010, 24쪽.
13) 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29쪽.
14) 리정구, 「소월의 시에 대하여」, 『문학예술』 1949년 8월호.

애수, 패배 등 부정적이며 감정적인 '부르주아적 정서'의 해악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해 '부르주아미학사상 잔재 비판'이었다. 다른 하나는 주제의 협애성, 장르별 특성을 무시한 장르의 국한성, 문체와 기교의 단순성을 초래하는 도식주의, 기록주의 양상에 대한 부정이었다. 이것들은 인물의 성격과 인간의 사회도덕적 문제를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정형화시켜 생활의 다양성과 모순을 은폐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상화하는 경향을 낳을 위험성이 다분했다.[15] 그럴 경우 전투와 복구 건설에서 모범이 돼야 할 인민의 참모습, 곧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물들의 '살아있는 전형적 형상'은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문단에서 1920~30년대 활약한 시인 가운데 부르주아미학과 도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시인으로 꼽히던 시인은 이상화, 박팔양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생활의 진실을 풍요롭게 표현한 작품 수효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웠다. 대안은 생활의 다양성과 삶의 진실을 빼곡히 담은『진달래꽃』의 시인 김소월을 누구나 동의할 만한 연구와 독서의 장으로 불러오는 작업이었다. 그를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못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의 과학적 전망을 확고히 가지지 못한 다감 다정한 서정시인 김소월"로 제한하여 평가하면서도 1955년과 1957년 김소월 선집을 잇달아 펴낸 이유가 여기 있다.

실제로『만선일보』의 평론가로 활약하다 해방 후 고향 신의주로 귀향했던 김우철은 시인의 서거 2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그 '전망 부재'의 단점을 상쇄할 만한 애국주의와 인민성, 그리고 미학적 성취를 계획성 있게 밝혔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첫째, 애국주의적 면모와 향토 시인으로서의 빛나는 재질을 거론했다. 이것은 10월 혁명의 영향과 3 · 1인민봉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퇴폐적, 세기말적인 자연주의 및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사실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소월은 사실주의와 거기 내포된 격조 높은 '로만찌카'(낭만성)를

15) 김성수,『북한문학비평사』, 역락, 2022, 89쪽 및 101쪽.

바탕으로 시종일관 "개념과 설명, 서술과 나열을 반대하였으며 주정의 초점을 세우려 형상과 서정의 명료성"을 추구했다. 셋째, 이것은 그의 시에 가득 담긴 조국애와 인도주의,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물론 그것이 자아내는 인민성과 형식의 다양성, 형상의 생동성, 다채롭고 풍부한 시적 언어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

이때 언급 또는 인용된 시가 "조국에 대한 사랑이 통곡의 경지에까지 승화"된 시라는 평가를 받은「초혼」을 비롯하여,「먼 후일」,「진달래꽃」,「접동새」,「산유화」,「금잔디」[16],「왕십리」,「삭주 구성」,「물마름」,「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밭고랑 우에서」,「상쾌한 아침」이었다. 미리 말하건대, 북한에서 결정된 소월 시의 '정전'은 이 작품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우철은 이와 같은 성취를 두고 소월은 "민족 해방에 대한 일관한 염원,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인민들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소박한 감정을 대변하려는 귀중한 노력"을 다한 시인이었다는 상찬을 아끼지 않았다.[17]

2) 『김소월시선집』과 『현대조선문학선집 (2)』의 힘

북한문단과 인민 독자에게 김우철의 주장과 평가가 보편성을 얻으려면, 소월 전집 또는 선집의 발행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소월의 시를 객관화 · 역사화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과 전후 복구 건설에 열성을 다하는 인민대중의 교양 자료로서 이를 능가할 만한 텍스트가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김소월시선집』(1955)과 『현대조선문학선집[시집] (2)』(1957)의 잇따른 출간은 그렇게 북한문단 및 인민대중의 눈과 손을 바쁘게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18]

---

16) 「초혼」~「금잔디」에 이르는 6편은「서정시 6편(1920-1935)」,『조선문학』1955년 12월호, 136~139쪽에 소월의 대표시로 실렸다.

17) 김우철,「시인 김소월 - 그의 서거 20주년에 제하여」,『조선문학』1955년 12월호, 159~166쪽.

18) 강영미,「김소월, 보편적 삶의 원리 미학화」,『정전 검열 기억』, 지식을만드는지식, 2019, 133~134쪽 "<표 8> 교과서 수록 김소월 시 목록" 참조. 저자는 북한 교과서에「초혼」이, 중국 연변 교과서에

두 시집의 출판 상황과 그에 대한 북한문단의 평가를 간단히 정리해 둔다. 먼저『김소월시선집』이다. 이 '선집'은 당시 북한 최고의 김소월 전문가로 활약하던, 또 현재 북한문학 50년사에서 최고의 평론가로 꼽힌다고 보도된[19] 엄호석이『진달래꽃』과『소월시초』중에서 총 104편을 선(選)하여, 1955년 12월 10일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5,000부를 발행했다. '선집'은 부(部)의 제목 없이 총 4부로 구성했으며, 각 부는「밭고랑 우에서」(32편),「초혼」(26편),「먼 후일」(23편),「개여울」(23편)로 시작되었다. 이런 구성은 당연히『진달래꽃』과『소월시초』의 그것을 의식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뒷부분에 배치된「김소월 략전」을 참고한다면, 그의 일정한 계급의식과 애국심, 1930년경부터 창작된 경향적 작품을 내세우기 위한 구성과 배치임이 여기서 짐작된다.

이는「상쾌한 아침」,「밭고랑 우에서」에서 사상적 진취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참모습을「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에서 확인하며,「초혼」에서 "조국을 애타게 부르며 통곡의 정신으로 노래한 서정시인 김소월"을 확증하는 것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과연 '선집'은 김소월의 풍모를 "향토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서정시인"에서 찾는 한편, 배열 순서를 "향토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내용으로 한 것", "인정세태와 풍물을 노래한 것", "사랑에 관한 쩨마(테마)"에 두었음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김소월시선집』을 두고 작성된 가장 유의미한 글은 무엇일까. 당시 한설야와 더불어 '조선작가동맹'을 좌지우지했던 평론가 안함광은 1956년과 1964년 간행된 서로 다른『조선문학사』에 '김소월론'을 연달아 게재했다. 북한처럼 사회주의 혁명에 복무하는 '당(黨)문예'가 창작과 비평, 그리고 대중의 독서 활동을 장악하는 구도 아래서 '노동당'의 인준을 거친 공식 문학사에 게재된다는 것은 해당 시인과 작품에 대한 가장 높은 평가가 지배적임을 뜻한다. 요컨대 선정 작가와 작품이 북한의 '인민적 · 국가적 이념/이데올로기 형식의 한 범주'[20]로 올라섰음을 뜻한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

「접동새」,「진달래꽃」,「초혼」,「엄마야 누나야」가 실렸음도 밝혔다.

19) 최석호(기자),「북 문단 최고 평론가는 엄호석」,『연합뉴스』2001년 4월 23일자.

만, 이때의 소월 시에 대한 재평가, 다른 말로 '정전'으로의 발탁은 텍스트의 탁월성과 독자에 대한 호소력의 보편성만을 핵심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보다는 소월의 시가 사회주의 혁명과 김일성 유일사상을 가장 중요한 사상과 이념, 국가의 목적으로 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잘 "들어맞는가", 혹은 수령과 당 중심으로 정해진 "규칙"에 잘 "부응하는가"가 핵심적 기준으로 작동했다.[21]

그 첫 증거물이 「김소월(1903~1935)」(『조선문학사 (1900~)』, 1956)인데, 이 글은 특이하게도 '대학용 교재'로 작성되어 중국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안함광의 입장과 평가도 다른 평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월 시가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풍부한 시흥, 고운 리듬, 절제 있는 표현으로 노래한 사실주의 기풍의 텍스트라는 것, 「시혼」을 통해 인생에 대한 자기의 상념, 자유에 대한 동경 등을 표현한 '즉흥적 서정시인'임을 드러냈다는 것, 애수와 추모, 향심(鄕心)과 고독이 시적 모티브의 주종을 이루지만 그것은 자조적 감정이나 자학적 내면과 거의 무관하다는 것, 그런지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의 생활 감정(특히 비통감)에 대한 존중이 탁월하게 표현되었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소월 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는바, '신생과 용기와 의욕'을 추상적으로 이해한 결과 '민족 · 노동해방투쟁'과 결부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현대조선문학선집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현대조선문학선집[시집] (2)』이다.[22] 출판사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출간 시점은 1957년 12월 20일, 발행 부수는 30,000부이다. 이 '선집'이 개인 독자에 대한 판매보다 소월 시를 위시한 1920~30년대 시편에 대한 독서가 요구되는 곳곳의 공공도서관이나 공동모임에 배포되었을 것임을 생각하면 대단한 발행량이 아닐 수 없다. 이 '선집'에도 소월 시는 부(部)의 구분 없이 「먼 후일」로 시작하여

20)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330쪽.
21) 존 길로리, 박찬부 역, 「정전(正典)」, 프랭크 랜트리키아 · 토마스 맥로린 편, 정정호 외 공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303~304쪽.
22)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해제」, 『현대조선문학선집[시집] (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3~7쪽.

「애모(愛慕)」로 막음 되는 총 104편의 텍스트가 실렸다. 『진달래꽃』과 『소월시초』 이외에 「거친 풀 흐트러진 모래동으로」, 「춘강(春崗)」, 「그리워」, 「야(夜)의 우적(雨滴)」, 「랑인(浪人)의 봄」 등 시집 미수록 발표작이 첫선을 뵈었다. 이 시들은 「오는 봄」, 「길」, 「버리운 몸」, 「들놀이」 등과 함께 이후 집과 고향, 님과 조국을 잃고 떠도는 '나그네'의 고독한 방황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예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경향은 1950년대 후반의 '김소월론'이 이미 '정전'의 위상을 확보한 유명작에 대한 읽기와 해석을 훌쩍 뛰어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그 성취나 의미는 소소할 수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시들은 인민성과 애국주의, 전통의 생활과 향토적 서정, 그것을 심미화하는 민족어의 발명과 세련화, 심지어 소월 시의 한계까지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데 매우 유용했던 것이다.

물론 「해제」 속 소월 시에 대한 평가, 특히 인도주의와 애국주의, 인민 연대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강조는 새로울 것 없다. 하지만 "조선 인민의 암담한 비극적 운명이 빚어내는 감정과 심리, 사상과 정서를 다면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나 "외면적인 애수의 흐름 속에 사람들을 긍정적 이상으로 고무하는 불같은 정열"을 노래했다는 평가는 "당대 조선 인민의 사상-정서적 감정의 운동을 자연을 통하여 진실하게 노래"했다는 역사화 · 심미화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떠도는 나그네는 조국을 잃은 인민의 형상인 동시에 인민을 다만 조국을 잃은 형상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한 시인 자신의 제한된 정신적 자태"라는 평가는 조국(애국)과 인민성의 관점에서 소월 시의 장단점을 동시에 띄워 올렸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소월 시의 형식적 탁월성을 "7.5조와 7.5조를 기초로 한 변체, 3.4조, 4.4조 등 다양한 정형률의 구성, 압운, 반복, 반향, 굴절 등 시어의 아름다운 구사"에서 찾아낸 것도 새로운 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조선문학선집[시집] (2)』가 김소월(의 시)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텍스트 수록 자체가 아니다. 시인이 1920~30년대, 그것도 프로시를 대표하는 이상화, 조명희, 김창술, 류완희, 김주원, 조운, 박팔양, 박세영과 함께 '선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기껏 20~30여 편 수록에 그친

저들을 압도하는 104편이 수록되었다는 점은 이 당시 김소월의 시적 위상과 영향력을 대변하는 증거로 모자람 없다. 북한문단에서 이들 8명의 시인은 주요한, 김억, 황석우 등 서구의 상징주의적 · 퇴폐적 시를 모방하는 데 급급했던 '세기말병 환자'에 맞서, 또 그들이 그려낸, 인민의 생활과 무관한 세계주의, 염세주의, 죽음의 찬미와 절망 노래를 부정하는 데에 시의 윤리와 의무를 두었던 것으로 상찬되었다. 그리고 혁명적 경향성과 노동계급에 복무하는 당성으로 무장한 프로시를 앞세워 '혁명적 빠포쓰'(파토스)와 사회주의적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펼쳐나간 투쟁의 시인들로 인정되었다.

실제로 박팔양, 이상화, 김창술, 박세영은 195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문학사『조선문학통사』(하)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당대 사회제도에 대한 근본적 혁신 운동"에 대한 실천자로 안내된다. 이에 반해 김소월은 "프로레타리아 문학 이외의 이 시기 진보적 문학"의 대표주자로 거론된다. 그렇지만 무려 5쪽에 달하는 분량 아래 "인민성, 애국성과 아울러 형상의 행동성, 시적 언어의 음악적 풍부성"을 중심으로 "조선 인민 해방 투쟁"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3] 예의 평가는 '문학사'란 기본적으로 "생존과 성장이 상호 의존을 요구하는 일터와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밀어 넣어진 사람들의 문화"[24]와 '정서' 등을 가장 중요한 표제와 내용으로 삼는다는 명제와 무리 없이 소통된다.

이 지점은 예의 '선집'(1957)과 '문학사'(1959)에 대해 뒤서거니 앞서거니 발간되는 엄호석의『김소월론』(1958)이 더욱 부각되는 까닭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엄호석은 작년(1956년) 발표한 '조명희론'에 이어 올해(1957년)는 '김소월론'을 제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25] 김소월의 시가 현대 조선문학사에서 특이한 가치를 가졌으며, 그 시 창작에 담긴 예술적 심오성이 연구자들에게 복잡한 미학상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을 집필의 까닭으로 들었다. 약속대로 그는 1957년 5월 집필을 완료했으며, 1년 뒤인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조선문학통사 (하)』, 과학원출판사, 1959, 83~87쪽. 이곳에 등장하는 소월 시는 '선집'의「해제」에서 언급된 시들과 거의 일치한다.
24) 송무,『영문학에 대한 반성 -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250쪽.
25) 엄호석,「김소월에 대하여」,『문학신문』1958년 1월 10일자.

1958년 8월 그것을 280여 쪽에 달하는『김소월론』으로 이름 붙여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펴냈다.

『김소월론』은 총 8부로 구성되었다. ① 김소월 시의 탄생에 관련된 시대적 · 미학적 배경, ② 천재성에 값하는 '시인적 운명', ③ 사회 · 미학적 이상과「시혼」의 관련성, ④ 상실과 설움을 훌쩍 초월하는, 애국적이며 인도주의적 본질로 울울한 '애수'의 본질, ⑤ "모국어를 가장 아름다운 말"로 사용하여 운율의 풍부성과 우아성, 시어의 음향성을 최대치로 밀어 올린 작시법의 특성, ⑥ 애국심과 인민성의 토대가 된 '조국의 자연'에 대한 애착과 관심, ⑦ 일제의 폭압적 통치로 자연, 향토, 조국을 잃은 '나그네'의 깊은 슬픔, ⑧「초혼」을 통한 애수와 이상 같은 상반된 감정의 통합, 심오한 애국주의 정신의 표출이 차례로 서술되었다.

단언컨대 엄호석의『김소월론』은 한시도 빠짐없이 북한의 '김소월'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가치 평가에서 기준과 모범이 되는 글쓰기였다. 이것은 엄호석 자신, 그리고 그의 문장을 그대로 답습했던 북한 문인들의 잘못된 문헌 인용과 적시에서 먼저 확인된다. 첫째, 북한문단은 김소월의 천재성, 현실 인식의 정확성과 사회비판의 열렬함을 인정하는 글로 2010년 무렵까지「긴 숙시(熟視)」를 계속 인용했다. 그러나 잠시 뒤 검토되겠지만「긴 숙시」는 일본 유학생 잡지『학지광(學之光)』에서 활약했던 남쪽의 '소월(素月) 최승구' 시인의 소작이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무참한 잘못을 불러온「긴 숙시」가 처음 등장한 지면이 바로『김소월론』(29~30쪽)이었다. 둘째, 소월이 시「여자의 냄새」,「손들 헤여진 후」,「강박 관념과 몰락의 비애」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착란과 동물적 발작의 어두운 면"(71쪽)을 탐색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시들의 발표지가 김억 편집의『가면』으로 제시되지만,「여자의 냄새」를 제외한 2편은 수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어법도 김소월의 작풍과 거의 무관하다. 엄호석의 오류가 분명한 지점이다. 그런데 1980년대 김소월의 복권을 '사실주의' 시인이라는 명제로 당위화했던 리동수는 자신의 저작『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1988)에 세 시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뒤 "자연주의적이며 퇴폐주의적인 흔적을 다분히 내포한 시들"(286

쪽)이라고 하여 평가 내용에만 약간의 변화를 주었을 따름이다.

이런 오류를 제외하고, 엄호석은 김소월 시의 본질과 가치를 '애국주의적 시인', 곧 '조국의 역사와 전통, 인민들의 감정'을 호소하고, '자기 조국의 향토와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모습에서 찾았다. 이는 소월의 유일한 시론 「시혼(詩魂)」에 대한 해석과 고평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북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소월의 「시혼」이 김억, 황석우 등의 부르주아 시론에 맞선 역작이었음을 힘주어 강조한다. 그들은 「시혼」을 "과거의 탁월한 사실주의 시인들이 축적한 전통과의 정당한 결합을 통하여, 인민의 생활 감정과 자연에 깊이 침투한 그의 창작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 도달한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천명하는 논단"[26]으로 평가했다.

만약 높은 '정전'의 보편성과 영원성이라는 것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동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견딜 수 있는 초시간적 성격을 획득할 때라야 가능해진다. 그 조건은 '정전'이라는 것은 과거의 순진성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야 비로소 지속적인 '공동의 관심'과 '공동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보존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27]

> 그는 비록 새 시대의 첨단에 서서 새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 애국자-투사를 감격적으로 노래하지는 못하였을망정 조국을 잃은 인민의 시대적 감정을 자기의 내적 체험을 통하여 그처럼 애수에 찬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참다운 예술가만이 자기의 예술적 환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전형의 하나를 떠도는 나그네의 형상 속에 창조할 줄 알았다. 그는 떠도는 나그네의 시대적 전형을 통하여 향토의 정조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잃어진 조국에 대한 인민의 극적 감정과 그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을 고조된 정서 속에서 부르짖었다. (엄호석, 『김소월론』, 242쪽)

---

26) 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93쪽.
27)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359쪽.

'애국주의'에 대한 강박과 '계급성', '인민성'에 대한 열띤 집착을 제외한다면, 생활과 향토에 대한 '애수'를 '시의 이슬'로 삼을 줄 알았으며 또 그것의 핏빛 맺힘에 최선을 다했던 소월의 세계 사랑법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표현된 문장이다.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참다운 예술가", 이를 바탕으로 특히 약자의 세계를 "자기의 예술적 환상"으로 풍요롭게 의미화할 수 있는 능력은 김소월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당대 북한문단의 현실이었다. 북한문단이 주체문학론 일색으로 변질되기 전까지 소월 시에 대한 한계 비판이 고작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소유하지 못한 것, 그 결과 민족적 슬픔을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식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28] 정도에서 그치는 이유가 여기 어디쯤 숨겨져 있을 것이다.

3. '천리마시대' - '주체문학' 형성기 소월 시의 등락

1) '천리마시대', 소월의 문학적 영웅화와 그 이면

1960년을 전후한 시기, 북한은 체제 위기와 새 나라 건설의 가능성을 동시에 맞이했다. 김일성 체제에 반하는 종파주의가 청산되었지만, 중 · 소분쟁의 영향으로 고립주의 노선이 채택되었으며, 그에 따라 북한식 사회-공산주의 건설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정권은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헌신성'을 체화한 모범적 인민(영웅)을 길러내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장으로 이끄는 '천리마운동'을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실천윤리로 내세웠다.

이런 현실은 소월 시를 인민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

28) 방연승, 「김소월 시 문학의 사상 - 예술적 특성」, 『청년문학』 1958년 1월호, 52~57쪽. 윤세평의 「김소월」(『해방전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46~256쪽)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펼쳤다.

라 혁명사업에 필요한 인민의 교양과 사상 고취, 그리고 현장 동원을 당위화하는 '애국의 함성'으로 밀어갔다. "민족해방에 대한 일관된 염원,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인민들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생활 감정의 사실주의적 대변".[29] 당대의 비평 권력이던 안함광이 내린 소월 시에 대한 평가이다. 소월 선집과 작가론이 출간되었던 1950년대의 소월 상찬에 뒤지지 않는 고평이다. 문제는 소월의 '애국심'이 그의 삶과 시 자체로 완결되는 정서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김일성 어록의 간섭과 지배 아래 그 뜻과 가치가 결정 나는 식민지화된 정서로 하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소월의 애국심과 향토애, '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 조국의 강토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 부모, 안해, 자식들에 대한 애정"[30]이라는 김일성 어록 아래서만 겨우 제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월 시는 사회주의 혁명과 새 조국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의 창출, 곧 김일성 체제를 지키는 결연한 의지와 용감함, 충성심, 절대적 복종과 헌신, 그리고 희생[31]을 교양하고 주입하는 '친체제적 전사자(戰死者)'로 새롭게 조형되고야 만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확인해 둘 게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북한문단은 민족해방과 혁명 조국 건설, 그를 위한 애국주의와 헌신성 고양을 설득하기 위해 김일성 어록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김일성 권력체제는 항일유격투쟁을 이끈 수령의 반제 정신을 높이 세우는 한편, 일제와 결탁한 민족 부르주아지와 봉건지주에 대한 증오, 아직 투쟁의 역량이 부족한 프롤레타리아의 한계를 잊지 않고 비판한다. 사실 이것은 김소월의 삶과 시를 역사화하고 현재화할 때도 예외없이 따라붙는 시대적 · 이념적 배경의

29) 안함광, 『조선문학사 (10) - 1920년대의 문학』, 고등교육출판사, 1964. 여기서는 권영민 편, 『평양에 핀 진달래꽃 - 북한문학사 속의 김소월』(통일문학사, 2002)에 수록된 「5. 김소월」, 169쪽 인용.

30) 『김일성전집』 3권, 1953, 289~290쪽. 여기서는 권영민 편, 『평양에 핀 진달래꽃 - 북한문학사 속의 김소월』, 165쪽 재인용.

31) 이것들은 히틀러가 제1차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이야기할 때 동원한 이상적 가치들이다. 조지 모스,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 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213쪽.

하나이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김일성의 1920년대 현실 진단과 민족해방-애국주의의 강조로 이어지는 '혁명 서사'가 소월의 삶과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긴 숙시」: "일제 식민 통치하의 조국의 비애, 인민들의 불행"에 대한 각성'에서 「초혼」: "민족해방 정신의 고취", 인민의 "뜨거운 애국적 열정, 슬기로운 비타협적 정신", 인민 "감정의 심오한 진실성과 풍부성"의 노래'라는 방식으로 변주되어 그려지는 것이 여기 해당한다.[32] 이것은 장편의 "김소월론"을 집필한 1958년의 엄호석, 1964년의 안함광, 소월의 복권과 관련된 1988년의 리동수 모두에 해당하는 집필의 문법이자 규율이기도 했다. 김일성 유일체제 건설이 급히 가속되는 '천리마시대' 이래의 소월 시 읽기와 해석이 김일성의 권력 장치를 선전하고 보조하는 '전사자 숭배', 곧 '김일성 숭배' 목적의 사이비 종교에 바쳐지는 '희생제물'로 도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여기서 생겨난다.

북한의 '천리마시대'를 김일성 유일체제에 복무하는 '소월(의 시)'이라는 '전사자 숭배' 하기(만들기)의 출발점이라고 여긴다면 어떤 문학적 행위나 사건이 중요해질까. 안함광이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연구실에서 의욕적으로 집필, 출간한 문학사의 한 권인『조선문학사 (10)』에 올린 '김소월론', 1965년을 즈음한 여러 형식의 소월 사망 30주년 기념행사, 특히『문학신문』이 기획한「소월의 고향을 찾아서」(총 12회 연재)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설법하다. 미리 말하건대, 이것들은 소월 시의 탁월함과 보편성을 안내하는 미학적 자료라는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소월 시를 '김일성 신격화'의 고취와 확산에 필요한 도구적 문장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안내자가 되기도 했다.

먼저 안함광의「김소월」이다. 그의 비평적 역량이 한껏 빛나는「김소월」은 '제1절 현실 부정의 시인', '제2절 그의 미학적 견해-「시혼(詩魂)」', '제3절 조국의 자연과 소월 시', '제4절 인민적 민족적 서정의 물결', '제5절 통곡의 격정(「초혼」론-인용자)', '제6절 그의 시 문학의 사상-예술적 특성'으로 구성

32) 이 단락의 직접 인용은「5. 안함광」,『조선문학사 (10) - 1920년대의 문학』, 고등교육출판사, 1964. 여기서는 권영민 편,『평양에 핀 진달래꽃 - 북한문학사 속의 김소월』, 105쪽 및 161쪽.

되어 있다. 글의 순서와 구성은 엄호석의『김소월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는 소월 시의 '아름다움'을 개별 시편에 체현된 "시대-사회에 대한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시인 자신의 개성적 체험"에서 찾는 유연함을 발휘했다. 또 그 체험들이 시인 고유의 리듬과 이미지를 통해 "여운적, 함축적, 호소적 특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애국주의적 격정의 집약적 부각"과 "진실에로의 깊은 감동적 침투"에 성공하고 있음도 명쾌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김소월의 시문학은 "조국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사랑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시 속에서는 "사상과 정서의 풍만성 속에서 인간의 내면적 미의 다양한 전형과 더불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소월 시의 언어적 토대와 장점이 "조선 말다운 조선 말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구사"하고 "인민적 언어의 재부를 훌륭히 섭취하여 이용하는 것", 그럼으로써 신기한 말이나 기묘한 표현 없이 "아름다우면서도 간결하며 섬세 우려(優麗)하며 서정적 여운이 간곡한" 시어를 구사한 것에 있었음도 잊지 않았다. 이것은 몇 년 전 소월의 7 · 5조를 "향토적 및 민요적 내용"에 대한 "자유시형"의 창조, "소재와 사상 감정의 다양성" 표현, "조선말이 가지는 아름다운 음색과 음향의 비밀"의 활용이라는 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다른 이의 비평과도 상통한다.[33]

안함광의 비평은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1964년의『조선문학사』는, 비록 김일성 어록이 곳곳에 등장해도, 우리 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사실주의-비판적 사실주의-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으로 파악했다. 그랬기에 이 문학사는 김일성 중심의 '수령론'과 '주체문예론'의 구심력에 완전히 속박되는 폐해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34] 안함광의 비평을 김일성 유일체제의 확립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소월 시에 대한 '전사자 숭배'화에 주력했던 것으로 판단해도 그릇되지 않은 이유이다.

---

33) 현종호,「김소월과 그의 시문학」,『현대작가론 (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274~278쪽.
34) 김성수,「북한『조선문학사』서술의 역사: 탈정전 북한 문학사 연구 서설」,『민족문학사연구』80호, 민족문학사학회, 2022, 276쪽.

그러나 안함광은 1967년 문학적 숙청을 면치 못했다. 숙청의 까닭은 같은 해 김정일이 내세운 담화와 깊이 관련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내린 일명 '5 · 25 교시'[35]에 대한 하나의 실천으로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하면서 그간 높이 평가된 김소월의 시를 가치 절하한다. 김정일은 소월 시가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일제에게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을 애절하게 노래하긴 했어도 "감상주의적이며 신앙적인 색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36] 김일성 유일사상과 항일혁명투쟁의 절대화에 바쳐진 '5 · 25 교시'의 결과 북한문단에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충실했던 문학자들이 대거 숙청되고, 1970년을 전후한 시기 주체문예론의 폭력적 확장이 거세게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이 불우한 문학 현실을 감안하면 '천리마시대' 소월 시는 '사회주의 미학'과 '주체문학'의 상호 편향 속에서 그 휘황한 불빛과 그 짙은 어둠을 짧은 기간 내에 뒤바꾸어 살아갔던 비극적 운명을 면치 못한 셈이다.

소월의 두 '선집' 발행이 그의 서거 20주년을 기념한 것이듯이, 북한문단은 서거 25주년 및 30주년에도 매우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그 가운데 '조선작가동맹' 기관지『문학신문』은 소월 시의 '쓰찔(스타일)'을 고평한 평론[37], '추모의 밤'에 대한 보고[38], '명시(名詩)'「초혼」을 위시하여「금잔디」,「진달래꽃」,「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삭주 구성」에 대한 지면 게재[39]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의 살아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문단 동

35) 김일성이 1967년 5월 25일 당사상 사업 부문 일군들 앞에서 행한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5 · 25교시)을 말한다. 이 연설을 계기로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 그리고 '수령제' 건설과 확장이 전면화된다.

36) 김정일,「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 당사상사업부분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김정일선집 1』,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280쪽.

37) 김창석,「김소월과 그의 시적 쓰찔 - 서거 25주년에 제하여」,『문학신문』1959년 12월 25일자. 그는 "잃어진 님과 향토, 조국을 슬퍼하는 애수와 슬픔의 리리시즘"을 소월 시의 스타일로 보았다.

38) 김성걸,「향토시인을 추모 - 김소월 서거 30주년 기념의 밤 진행」,『문학신문』1965년 12월 28일자. 1년 뒤에는 김영희 기자의「소월의 고향 곽산 땅에서」(『문학신문』1966년 4월 1일자)가 실렸다.

39)「초혼」은『문학신문』1963년 2월 1일자, 나머지는『문학신문』1965년 12월 24일자. 한편『노동신문』1965년 12월 25일자에는「초혼」과「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이 실렸다.

료들의 추억과 애도도 빼놓지 않음으로써 시적 '전사자 숭배'의 분위기를 한껏 밀어 올렸다.

예컨대 소월 서거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배재고보 윗학년생이었던 박팔양은 청소년기 소월 시에 대한 첫 만남과 읽기 경험을 감격적으로 회고했다. 그러면서 소월 시가 "소박한 인민적 언어"로 표현한 "절절한 향토애", 곧 "애국적인 시 정신"으로 빛나는 "향토 시인이며 인민적인 시인이며 애국 시인"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 말과 글을 아름답게 쓸 줄 알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찬란하게 빛을 뿌리게 한 천재적인 시인"[40]임도 분명하게 밝혔다. 소월의 민족어와 그에 담긴 정서와 사색이 당시 매우 뛰어난 장점으로 널리 인정되었음은 강성만의 "서정시의 진미는 시에 노래된 현실 자체의 미나 평면적 화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면적이고 회화적 화폭이 불러일으키는 정서, 사색에 있다"는 말과, 그 예로 「바다」, 「가는 길」, 「삭주 구성」을 든 것[41]에서도 유감없이 확인된다.

다음 해인 1966년 『문학신문』 기자 김영희는 '조선작가동맹'에서 세운 묘비문 "김소월, 그대의 주옥 같은 노래는 인민들의 가슴에 자랑 높이 울리고 향토와 인민에게 바친 애국정신은 조국 만년 길이 빛나리라!"를 한 잡지를 통해 북한 전역에 알렸다.[42] 이에 2달 앞서 월북작가 조벽암도 "소월 묘를 찾아가는 길에"라는 부제 아래 「곽산에서」(『문학신문』 1966년 3월 18일자)를 발표했다. "눈물에 젖던 그 진달래 / 이젠 그 웃음에 피는건가 / 깨끗한 눈길 우에 / 송이송이 빨간 꽃송이 / 눈에 홀려 꽃에 묻혀 / 아, 그에 이끌려 / 나는 가네."가 마지막 부분이다. 이곳의 '진달래'는 소월, 임, 조국 등 그 모든 그리움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긴 숙시」에서 「초혼」으로'에 담긴 '소월론'의 '애국주의 서사'는 북한문인들의 회고나 애도, 추모 비평의 반복적 지속을 통해서만 탐구되고 완성되지 않았다. 사회주의권 실화(기록)문학을 뜻하는 '오체르크(ocherk)'를 연상케

40) 박팔양, 「조국의 향토를 사랑한 시인 김소월」, 『문학신문』 1965년 12월 24일자.
41) 강성만, 「서정시와 일반화의 특성」, 『조선문학』 1964년 8월호, 90쪽.
42) 김영희, 「향토시인 김소월」, 『천리마』 1966년 5월호, 76~78쪽.

하는 어떤 기행문의 기획과 신문 연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이 신문 기획 · 연재에 숨겨진 배경이 없을 리 만무하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오체르크'는 '공산주의 인간형 창조'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권장되어 모범적 영웅의 창조와 모델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이 기행문이 소월의 고향을 찾아 그의 삶과 시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 이를테면 조숙한 시적 천재성, 식민화된 향토에 대한 분노와 그 이전 산하에 대한 그리움, 그 결과로서 애국주의의 체현 등을 전면에 드러낸 것도 이와 관련될 듯싶다.

북한문단은 1960년을 전후하여 특히 시에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고 민족적 전통의 계승과 혁신에 공헌한 시를 읽고 또 새로이 창작할 것을 강조했다. 물론 이 작업의 최종 목표는 1930년대 김일성의 민족해방(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혁명적 유산에 대한 민족적 긍지를 드높이고 인민의 낙천적이며 생활 긍정적인 진취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이 당시 북한문단은 "당과 수령의 형상 속에서 혁명적 낭만성의 원천을 찾"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이것은 추후 '주체문예'의 핵심이 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적 사상과 민족성, 그리고 인민성을 탁월하게 드러냈던 근대시(인)들은 그것을 뒷받침할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 재분류될 예정이었다. 1960년대 초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이상화, 김소월, 박세영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소월의 영향과 인기가 가장 높았더랬다.[43]

지금까지의 설명에 해당하는 글이 1966년 5월 10일~7월 1일 사이『문학신문』에 총 12회 연재된「소월의 고향을 찾아서」이다. 이 기행문은 소월의 생애와 고향의 풍토를 중심으로 '정전' 수준의 작품이 태어난 사연과 그 가치를 주로 기록했다. 또한 12회 앞에〈독자의 목소리〉를 실음으로써 소월 시가 "만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소리임을, 또 이것이 본 기행문 연재의 핵심이었겠지만 인민에게 "고상한 인간적 풍모를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하여 화폭처럼 안겨 주고 있"음을 힘주어 강조했다.

---

43) 박종식,「서정시와 현대성 - 제3차 당 대회 이후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조선문학』1961년 제7호, 114~115쪽.

이를 바탕으로 기행문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첫째, 향토와 자연의 아름다움, 둘째, 「춘향전」, 「홍길동전」, 「임진록」 등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 셋째, 남산학교 교육을 통한 민족적 울분과 애국심의 함양, 넷째, "잃어진 조국, 쓰러져 가는 향토"에 대한 분노와 「긴 숙시」(전문이 인용됨)의 창작, 다섯째, 필명 '소월(素月)'의 탄생 과정과 "빼앗긴 조국을 부르짖으며 압제자를 저주하는 즉흥시"를 짓는 천재성과 애국의 심리, 여섯째,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과 「바다」를 탄생시킨 고향 산천의 풍요로움, 일곱째, '3 · 1인민봉기'에 대한 참여와 이후 전망 모색으로서 소설 「함박눈」의 창작, 여덟째,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뒤의 행적(부르주아 문인의 비난과 안해에 대한 사랑), 아홉째, 수리조합투쟁 참여와 「초혼」 속 "부르다가 죽을 이름"으로서 '조국'의 절절한 호명, 그리고 자살(베개 밑의 "흰 종이 봉지"), 열째, 소월 천재성의 근원으로서 조국애. 과연 연재를 마치는 시점에서 기자는 "소월,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그의 남다른 감수성, 그의 시를 낳은 아름다운 고향이 있어서만 아니다. 소월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뜨겁고 뜨거운 그 마음이다"라고 적었더랬다.

아무려나 「소월의 고향을 찾아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빼앗긴 향토와 조국이 소월을 '향토 시인' 아닌 '애국 시인'으로 키워냈다는 것, 둘째, 어려서부터의 독서 이력과 창작 욕구가 '이야기꾼'을 거쳐 탁월한 시인으로 성장시켜 갔다는 것, 셋째, 프로시나 혁명투쟁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시 쓰기를 통해 애국심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간 진보적 사상과 이념의 소유자였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여타의 「김소월론」에서와 달리 '김일성 어록'이 직접 인용되지 않았으며, 그의 실제 삶과 경험, 시와 소설 등을 중심으로 기행문의 매력과 흥미가 배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에 살아 있던 소월의 자녀와 손자들, 초등학교 동창들에 대한 인터뷰도 실어 사실성과 현장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북한문단에서 유례없는 글쓰기라 해도 좋을 「소월의 고향을 찾아서」에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소월의 3 · 1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기록이다. 남한에서는 3 · 1운동에 따른 '오산고보' 폐교와 '배재

고보'로의 전학 사실만 강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적 참여 여부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검증이 여전히 필요한 대목이다.

둘째, 가족과의 인터뷰 등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소월 사후 모아졌을 법한 '유고(遺稿)'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취재 당시 가족들은 기자에게 소월이 어려서부터 고전소설과 영웅전기소설을 탐독했으며, 봉건영주의 포악성과 부자의 탐욕, 어질고 정정(貞靜)한 여인들의 효성과 절개 등을 다룬 이야기책을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하게 구술하곤 했음을, 그런 만큼 '이야기꾼'의 자질과 실력이 뛰어났음을 말해주었다. 또한 남산학교와 오산고보 시절에 이미 뛰어난 시 창작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전해주었다. 이 정도면 기자는 응당 생전의『진달래꽃』(1925)과 사후의『소월시초』(1939)에 담긴 시 이외에 창작(유고)시를 혹시 갖고 있는가를 물을 법한데 그런 관심과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자의 무관심이 아니라면 다음의 사정 때문에 질문을 생략했는지도 모른다.

잘 알려진 대로 소월의 유고 31편은 1976년 서울 고서점에서 스승 김억의 작품과 뒤섞여 발견되었다. 그 후 원전비평 등 다양한 검증을 거쳐『문학사상』(1976년 12월호)에 실렸다.[44] 이를 감안하면 소월의 유고는 제자의 죽음에 깊은 상심과 슬픔을 아끼지 않았던 스승 김억이 장례 절차를 밟고 나서 수습, 보관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것들은『소월시초』에 미처 실리지 못했으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김억의 납북 이후 가족들이 보관하다가 1970년대 중반 무슨 일을 계기로 고서점에 흘러나온 뒤『문학사상』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

2) 「긴 숙시」의 허위성, 「초혼」의 혁명성

「긴 숙시」의 '천재성'에서 「초혼」의 '애국주의'로, 나라 잃은 '슬픔'에서 민족해방의 '격정'으로 상승해 간 소월 시에 대한 영웅화 또는 '전사자 숭배'가

44) 김용직,「소월문학의 정본화 과정과 문제점」, 김용직 편,『김소월전집』, 서울대출판부, 1996, 529~530쪽.

다다른 지점을 다시 점검해 보자. 먼저「초혼」이다. 현재 북한에서「초혼」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면은 2000년 출간된『문학대사전(1)』(정성무〔책임편찬〕, 사회과학원)의 '김소월' 항목이다.

> 그의 대표작「초혼」에서는 산산이 부서지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다가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통곡의 격정을 터트림으로써 빼앗긴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소월의 시들은 풍부하고 섬세한 서정과 음악적인 운율, 아름답고 간결한 시어와 정교하고 평이한 형식, 짙은 민족적 정서로 특징지어진다.

이 문장의 뜻을 따로 되새길 필요는 없을 듯하다. 1950~1960년대, 1980~1990년대 집필된 장문의 '김소월론'들에서 핵심 문장을 가져오면 그대로『문학대사전(1)』에 오른「초혼」의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슬픔과 애수, 염원과 이상의 온갖 감정을 다하여 불러온 모든 시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상"(엄호석), "「초혼」에 있어 통곡의 격정, 그것은 민족해방 정신의 고취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안함광), "소월의 시가 유산을 대표하는 필생의 역작「초혼」은 그의 시적 체험의 총화이며 그가 축적해 온 사상과 열정과 사색의 총결산으로 된다."(리동수), "향토와 고향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신성하고 고상한 사랑"(류만).[45] 자칫 애국과 저항의 구호, 혁명과 이념의 선전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짙었던 북한 독법 아래의 소월의 '시혼'은 그들도 상찬한 누구보다 뛰어난 운율과 시어, 형식의 고안과 일상화 덕분에 그 우려를 너끈히 비끼어 갔다. 소박해서 오히려 화려한 이 형식의 탁월함은 '향토애'와 전통의 '정한',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남한의 김소월 독법을 더욱 심화, 확장해 갈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미래의 남북한 통합 '정전' 구성 및 해석의 접속점으로 작동할 것이다.

---

45) 북한의「초혼」에 대한 시대별 평가에 대해서는 이상숙,「북한문학 속의 김소월 1」, 46~53쪽 참조.

사실「초혼」은『문학대사전 (4)』에 독립 항목으로도 실렸다. 소월 시에서의 '대표성'과 역사적 · 이념적 · 미학적 가치의 뛰어남이 또다시 입증되는 지점이다.[46] 내용은「김소월」에서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데, 다만 "시는 우의적인 형상 수법으로 나라를 빼앗긴 비통한 체험 세계를 시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내였다"(78쪽)라는 서술이 인상적이다. 그런데 '애국주의'가 소거된 이 부분은 김정일의 예술가와 작가에 대한 담화, 곧 '당의 유일사상체제' 강화를 지시하는 발화의 한 대목인 "그의 시에는 감상주의적이며 신앙적인 색채가 깔려 있"다는 비판과 상통한다. 여기서 소월 시는 1980년대 중반 진보적인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 복권되었어도 여전히 김정일의 1967년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인상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 함께 발행된『문학대사전 (1)』의「김소월」말미에 "부분적으로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약점을 나타내었다"는 한계 비판이 버젓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의 '김소월론'에서 가장 문제적인「긴 숙시(熟視)」를 논할 차례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작품은 엄호석의『김소월론』(1958)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0년 근방의 각종「김소월론」까지 시인으로서 소월의 '천재성'과 식민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 뜨거운 애국심과 향토애의 발화점으로 빠짐없이 인용되었다. 그러나「소월의 고향을 찾아서」에 전문 인용된「긴 숙시」는 26세로 요절한 근대시인 '소월 최승구'(1892~1916)의 작품으로,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잡지『근대사조(近代思潮)』창간호(편집 겸 발행인 황석우, 근대사조사, 1916. 01. 26)에 실렸다.

아마도 여기 기록된 '素月'이라는 필명이 북한문단이 저지른 오해의 단초가 된 듯하다. 엄호석은 이 잡지의 발간지를 '서울'로 기록하는 오류도 범하

46) 이는 북한 교과서 수록 상황에서도 입증된다.「초혼」은 '11년제 의무교육' 시기(1972~2011)에는『문학』(중학교 4) 교과서 '광복전 진보적 문학' 단원에,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시기(2012~현재)에는『국어문학』(고급중학교 2) 교과서 '민족문학유산의 갈피에서' 단원에 수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최창헌,「남한『문학』과 북한『국어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현대문학 작품의 비교 연구 - 김소월의「초혼」과 최서해의「탈출기」를 중심으로」,『구보학보』23집, 구보학회, 2019, 623~629쪽 참조.

며, 열다섯도 안 된 어린 김소월의 천재성과 예리한 시대 인식을 칭찬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1961년 현종호가 정확한 서지를 적시한 것을 볼 때 북한에 이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47] 그럼에도 원전비평의 불철저함 또는 의도적 무시로 인해 최소월의 「긴 숙시」는 김소월의 그것으로 계속 와전되는 오류를 면치 못했다. 남한에서도 최소월은 1980년대까지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1982년 『최소월작품집』(김학동 편, 형설출판사)이 간행되며 연구자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의 근대계몽기 연구, 특히 한국 자유시의 근원에 대한 집중적 검토 속에서 「긴 숙시」는 1990년대 들어 예의 작품집에도 빠져 있던 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원본 확정과 그것의 제시를 통해 최소월의 작품임을 확증 받았다.[48]

원저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누락됨으로써 이제는 '김소월'에 대한 가장 큰 잘못으로 남게 될 「긴 숙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북한 학문이나 문학 교류를 통해서, 또는 북한 문단이나 연구진 자체의 혜안으로 이 잘못이 수정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 가능성이 최근의 어떤 글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2011년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문학신문』에 소월 최승구와 그의 대표작 「삘지엄의 용사」, 그리고 「긴 숙시」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49] 「긴 숙시」는 제목만 올렸을 뿐 간단한 해설조차 없지만, 「삘지엄의 용사」에 대해서는 몇 대목을 인용하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문학적 · 이념적인 호평을 내리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나 당대의 식민 · 봉건 현실에 대한 객관적 반영은 부족하나,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반항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진보 지향성을 통해 1910년대를 빛낸 자못 의의 있는 작품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남한의 연구나 서적에 대한 참고가 암암리에 느껴지지만, 북한 내부에서 「긴 숙시」의 원저자가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사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후의 '소월론'에서 「긴 숙시」의 삭

47) 현종호, 「김소월과 그의 시문학」, 246쪽.
48) 김용직의 『김소월전집』(서울대출판부, 1996, 534~535쪽)에서 「긴 숙시」가 소월 시로 오인된 원인과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49) 최경화, 「반일항거정신을 구현한 소월의 시 「삘지엄의 용사」, 『문학신문』 2011년 11월 12일자.

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긴 숙시」~「초혼」의 '애국 서사'에 대한 변화와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서사의 발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새 서사가 어떤 형식과 내용을 취하게 될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불확실성의 시공간에 대해 바랄 게 있다면,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의 전체주의적 사상과 이념 체계가 압도하는 소월 시 읽기에서 시인의 천재성과 미적 정서가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그것을 더욱 풍부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 제도와 구조가 더욱 폭넓어지는 것일 따름이다.

4. 1980년대 소월 시의 복권과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의 편입

1) 소월 시의 복권, '항일혁명문학' 아래로의 주변화

1965년 서거 30주년을 맞아 절정으로 치닫던 소월 시의 가치화는 1967년 김일성의 '5 · 25교시' 및 그 부속물인 김정일의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계기로 철저한 배제와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소월 시가 인민의 혁명 교양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 향토와 조국 상실에 대한 슬픔과 설움이 없잖지만 그 정서가 감상주의적이며 심지어 신앙적 색채마저 띠고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때 시작된 소월 시의 암흑시대가 얼마나 호된 것이었는지는 1967년~1986년 사이 그의 이름과 시가 신문과 잡지, 시(선)집, 문학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바로 확인된다.

이를테면 저 시기 발간된 김일성종합대, 김형직사범대,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사』[50] 들에서 김소월은, 1967년 반당종파분자로 숙청

50)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문학사 (2)』(1971), 사범대학용 『조선문학사 (2)』, 박종원 · 최탁호 · 류만의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1980), 김일성종합대학(은종섭)의 『조선문학사 2』(1982)가 대표적이다.

당했다 1981년 복권된 박팔양과 더불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당대를 대표하는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51]를 예로 들면, 이상화, 김창술, 류완희의 프로시만 최상의 고평 대상으로 올랐을 뿐이다. 이들의 작품이 착취와 학대에 던져진 약자들의 고통과 불행, 그들의 현실모순에 대한 울분과 반항, 나아가 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을 노래한 것이 인민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교양과 계몽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1970년대 이후 북한문단은 '당의 영도'의 본질과 기본 요구, 곧 '김일성유일사상'과 '항일혁명투쟁'을 높이 받들며 그것을 영웅적으로 형상화하는 '주체문예' 일색으로 전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두 과제를 실현하는 작가의 정치적 자각과 창조적 열의, 당의 문예정책 관철에 의한 '사회주의문학예술'[52], 곧 '주체문예'의 건설에 도움 되지 못하는 작가와 작품들은 연구와 독서, 해석과 평가의 대상으로 선택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1986년 모든 문학 연구나 활동이 '당의 문예정책'아래 기획, 집행되는 북한의 지배구조를 생각하면 쉽사리 납득 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다. 북한의 각종 사상과 이론을 연구, 제출하는 사회과학원 소속의 정홍교 · 박종원이 펴낸 『조선문학개관 Ⅰ(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에 김소월이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의 대표격으로 전격 복권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소월 시에 대한 평가는 당대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 인식과 비판을 토대로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향토적 풍속,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 비애와 슬픔, 간결한 시어와 정교하고 평이한 형식, 짙은 향토적 색채와 민족적 정서의 탁월함, 특히 「초혼」의 '애국적 격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1950~60년대 고평과 거의 동일한 또 다른 호평임에 분명한 장면이다. 한계야 늘 그렇듯이 세계관의 제한성에 따라 민족적 비애와 울분의 토로에 그침으로써 현실을 뚫고 나갈 방도와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두어졌다. 결국 이와 같

51) 박종원 · 최탁호 · 류만,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202~213쪽. 비슷한 시기 김일성종합대학(은종섭), 『조선문학사 (2)』(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에서는 1920년대 시사를 "2. 리상화의 창작과 모순된 현실에 대한 항거 의식을 반영한 시문학의 발전"으로 명제화했다.

52) 한중모 ·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662쪽.

은 한계를 제외하면 "애국적인 감정과 민족적 정서를 민요풍의 아름다운 형식에 구현한" 서정시의 창조자였다는 게 최종 평가였다.[53]

북한은 1984년 암흑 속에 가둬두었던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박팔양, 백석, 이용악 등을 대거 복권했다.[54] 그 까닭으로 첫째, 문학 발전의 역사를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함, 둘째, 문학사 서술의 기초 공정인 자료 발굴의 수집에 전력함, 셋째, 사회주의 문학예술에서의 노동계급의 형상에 관한 문제 및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 발전과 특색 등을 해명함을 들었다.[55] 이를 위해 벌인 국가적 사업이 1987년 시작된 100여 권의 『현대조선문학선집』 발간이었다. 잠시 뒤 다시 보겠지만 김소월은 선집 14권 『1920년대 시선 (2)』(1992)에 158편이 실림으로써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배제와 소외를 무색하게 했다.

일련의 선집 간행에서 포착되는 근대문학의 '확장'과 작품 수록의 '유연성'[56]은 그러나 작품의 자유로운 읽기 및 감상을 위한 미학적 기준과 범주 확대에 크게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예로 든 "주체의 방법론"이 지시하듯이, 근대문학의 복권은 '주체의 문예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을 독려하며, "자주시대의 문학은 주체의 인간학"임을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미학적 수단이었다. 과연 김정일은 1992년판 『김정일 주체문학론』을 통해 김일성 중심의 '항일혁명문학'을 '우리식 사회주의' 및 '주체문예'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으로, 1920~30년대 대개의 근대문학을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 서열화했다.[57] 이것은 김소월을 위시한 근대작가의 복권이 어디까지나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한 제2

53) 정홍교 · 박종원, 「192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과 현진건, 라도향, 김소월의 창작」, 『조선문학개관 Ⅰ(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359~361쪽.
54) 김재용, 「남북에서의 김기림 평가와 평화통합」, 『남북협상파 문인들』, 역사공간, 2024, 289~292쪽.
55) 편집부, 『조선중앙년감(1987)』, 조선중앙통신사, 1987, 271쪽.
56) 『현대조선문학선집』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를 비롯하여 '선집'의 미학적 가치와 이념적 목적에 대해서는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 - [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참조.
57) 김정일,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의 "유산과 전통"(57~90쪽) 참조.

의 군집(群集)일 뿐 '항일혁명문학', 곧 현재의 주체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는 결코 미칠 수 없음을 널리 선포하는 공격적인 선언 행위였다.

이상의 『조선문학개관』(문학사적 평가)과 『현대조선문학선집』(정본-정전의 실제), 그리고 두 저서의 사전 기획과 사후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일 주체문학론』(권력의 승인)을 본다면, 소월 시의 복권은 "진정한 인민의 문학, 참으로 혁명적인 노동계급의 문학"으로 발전한 "항일혁명문학"을 뒷받침하는 수단적 · 도구적 '정전'으로 다시 호명된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어떤 '김소월론'을 보아도 전 작품의 '주체문예'화를 지시한 '5 · 25 교시' 이전 비평가들의 해석과 평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기는커녕 엄호석, 안함광의 논의와 평가를 요약, 반복하거나 김일성과 김정일 어록에 소월 시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어록에 맞춘 해석 행위는 소월 시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잠깐 쓰고 버리는 '이페머럴 미디어'[58]로 타락시켜 그것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오염 또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정치화 · 이념화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소월 시가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 가치 조정되었을지라도 그것 스스로 여타의 시(인)들과 차이를 드러내면서 우월한 '범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솜씨와 지혜의 본보기를 수립하는 '규범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소월 시는 그 내부에 풍부하고 복합적인 미학적 틀과 내용을 여럿 감춰둠으로써 매혹적인 미감(美感)과 감동을 풍부하게 이끌 줄 줄 알았다. 이 점, 소월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모범'이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작문과 문체의 '본보기'로 정의되는 본래의 '고전(classic)'[59] 창조자에 가까웠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58) 'Ephemeral Media'는 '복제된 일시적인 매체'를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 전경선 역, 『비주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 - 포스터 · 그림엽서 · 우표』, 소명출판, 2019, 21쪽 참조.

59) '정전'의 규범적 기능과 고전(classic)'에 대한 설명은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347쪽 및 338쪽.

2) 소월 시, 비애와 고독의 절정, 자주적 인간성의 부족

1988년 선뵌 리동수의 '김소월론'[60]은 120여 쪽의 분량에 「시혼」과 40여 편의 시를 통해 소월의 삶과 시적 여정, 시론('사회미학관')과 시 창작의 원리, '비애'의 서정적 본질과 시적 형상의 특질, 시의 운율과 시어의 특성, "시적 체험과 열정의 총화로서의 「초혼」"을 분석하고 가치화한 본격 연구-비평이다. 이 저작은 소월 시를 '비판적 사실주의'의 뛰어난 성취를 대변함으로써 소월 시가 '현대조선문학의 발전 역사', 곧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확립에 기여한 '진보적 문화유산', 곧 '민족문학예술유산'의 표본임을 내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가 소월 시의 서정적 핵심을 '비애'에 두고 거기서 소월 시의 민족적 내용과 전통적 정서를 읽어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비애'를 단순히 슬픔과 좌절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미와 인정적 미", "향토적 정서와 민족적 향취"를 그려내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고 내면화한 정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소월 시의 성취를 첫째, 비애적 감정, 향토적이고 민족적인 향취, 자연의 모든 대상을 인정에 굴절시켜 정서적으로 의의 있게 표현한 것, 둘째,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두고 연대하는 인민들의 고결한 민족정신과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애국 정서의 체현을 구체화한 것, 셋째, 그 절정을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충만하고 '애국적 열정'으로 불탄다고 평가한 「초혼」에 집약시킨 것 등으로 객관화한 것도 기억해 둠 직하다.

그러나 소월 시의 한계를 작가의 세계관적 약점과 사상의 불철저성, 애국적 이념에 일정하게 기초했지만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념과 인민적 입장에서 철저히 출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은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단순히 옛 평가를 옮겨적은 것을 넘어 '진보적 문화유산'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취한 의도적 발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동수의 '김소월론'은 구성과 평가 논리, 글의 흐름과 주장 전반, 더욱이 여러 오류마저도 엄호석의 『김소

60)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268~346쪽.

월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약점은 리동수 개인의 비평적 한계를 넘어 더 이상 새로운 '김소월론'을 생산하지 못하는 북한문단의 미학적 · 논리적 궁핍함을 상징적으로 비춰주는 일그러진 거울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주체문예의 시대'에 소월 시가 수록된『1920년대 시선 (2)』의 편집과 감수, 그리고 평가, 나아가 새『조선문학사』를 통한 역사화와 당문예 정책의 투사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연구자 겸 비평가 류만의 여러 활동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류만의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1950년대 후반 출간된 2권의 시선집 이후 거의 4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한『1920년대 시선 (2)』속 소월 시의 특성을 잠시 살펴본다.

시론「시혼」과 158편의 소월 시가 실린『1920년대 시선 (2)』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처음 실린 시들이다. 대체로 신문과 잡지에 발표되었으나『진달래꽃』과『소월시초』에 실리지 못한 시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단연 주목되는 시라면「옷과 밥과 자유」,「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원제:삼수갑산)」,「팔벼개노래」를 들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시는 식민 봉건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이해라는 점에서, 두 번째 시는 북한문단에서 퇴폐적인 부르주아 시인으로 늘 비판되던 소월의 스승 김억의 이름을 빌려 고향 상실의 아픔과 그리움을 절대화하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시는 기생 화자(話者)를 내세워 조국 상실을 포함한 고향과 님의 상실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소월 시의 핵심인 '향토애'와 '애국' 정서를 다시 평가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1992년『1920년대 시선 (2)』의 출간 뒤 소월 시의 '정본'으로 떠오른 저 시들에 대해 북한문단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했을까. 이 작업은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소속의 류만이 담당했다.[61] ① 소월이 1920년대 부르주아문학과 거리를 두고 진보적 시창작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 ② 조국의 자연과 향토, 민족적 풍습에 관한 관심과 사랑, 잃어진 것에 대한 애모와 그리움 등을 그윽한 정서로 노래했다는 상찬, ③ 당시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 소박하고

61) 류만,「《1920년대시선》(2)에 대하여」,『현대조선문학선집 14: 1920년대 시선 (2)』, 문예출판사, 1992, 11~32쪽.

아름다운 염원과 이상을 사실주의적으로 노래하는 한편 독특한 민요풍의 시 세계를 독창적으로 개척했다는 고평, ④ 7.5조와 그것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정서의 의미와 박동을 살리고 음조미를 아름답게 표출했다는 호평, ⑤ "잃어진 것에 대한 통탄, 향토와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들에 대한 동정과 인도주의적 감정을 일정하게 표현"했으나,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념과 인민적 입장"에서 출발하지 못했다는 장단점의 역사화 등은 기존 평가를 거의 따르고 있다. 심지어 12살 때 쓴 「긴 숙시」를 『근대사조』 1916년 1호에 발표했다는 잘못도 답습했다.

이와 같은 평가 속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랑과 이별, 그리움에 맞먹는 감정으로 '비애' 또는 '애수'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이나 시름"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이, 애수(비애)는 잃어짐의 슬픔이나 설움과 깊이 연관되는 감정이다. 사실 소월 시의 핵심을 '애수'로 처음 본 것은 엄호석이다. 그는 "애수의 미적 본질"이라는 제목 아래 김소월의 '애수'가 "조국이 처한 비극적 운명, 제도의 모순이 빚어내는 인간적 처지, 향토와 님을 잃은 인간의 운명", 곧 "잃어지고 사라져 간 것에 대한 비극적 체험"에서 발원한 것으로 파악했다.[62] 이를 좇아 리동수도 '비애'를 소월 시의 '서정적 진수'을 이루는 정서로 규정하며 그것이 생활에 대한 비극적 체험의 심각성과 정서적 침투의 예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63]

이들의 말은 류만에게서 "잃어진 것에 대한 비애와 사모, 고독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향토와 조국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감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64]으로 변용된다. 사적인 감정에 가까웠던 소월의 비애와 고독은 고통스런 생활현실에 던져진 인민들에 대한 동질성 및 연민의 감정을 확인하며 마침내는 향토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된다. 가만히 짚어보면, 여기에도 「긴 숙시」에서 「초혼」으로 서서히 그러나 뜨겁게 상승해간 결핍-자각-사랑-투쟁의 서사가 숨어 있다. 실제로 엄호석과 리동수, 류만은 '비

62) 엄호석, 『김소월론』, 117쪽.
63)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287~288쪽.
64) 류만, 「《1920년대시선》(2)에 대하여」, 20쪽.

애'의 정서로 충만한 시들을 먼저 읽어낸 뒤 정해진 문법처럼「초혼」을 글의 마지막에 배치했다. 그 결과 리동수를 빌린다면 "시적 체험과 열정의 총화로서의「초혼」"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에 이른다.

그러나 류만의 해설은 여타의 '김소월론'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점이 하나 있다. 그는 일제의 식민통치 강화와 인민 생활의 악화, 두 문제에 맞선 노·농운동의 성장을 들며, 이런 상황을 함께 했던 소월이 세계관의 한계로 말미암아 애국주의적 감정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숙시켜 나가지 못했음만을 한계로 들지 않았다. 이에 더해 '주체문예'의 관점에서 소월 시의 한계를 거론하는 새로운 입론을 전면화했다. 4년 전 리동수는「초혼」에 대해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충만되고 애국적 열정으로 불타는 소월의 대표적인 시가 유산"으로 가치화했다. 그러면서도 그밖의 소월 시가 고향과 조국을 잃은 설움과 비통한 체험에 기대어 울분을 터치하는 한계에 머물렀다는 것, 그것을 넘어 어떤 이상도, 사회적 비극의 근원과 해결 방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차갑게 비판했다.[65] 이와 달리 류만은 첫째, 소월이 그 자신의 내면심리적 체험과 생활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둘째, "세태적인 생활 이야기에 머물면서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을 한계로 들었다. '진보적 문화유산'으로서 소월 시의 성취를 확실히 제시한 리동수와 달리, 류만은 '수령 형상'의 창조에 이어 강조되는 '주체형의 인간 전형', 곧 "자주적 인간"의 창조하는 것에 소월 시가 미달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확실히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의 등재는 소월 시를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동행하는 또는 그것에 미달인 진보문학으로서 '비판적 사실주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했다. 그렇지만 '민족·향토적인 것'으로서의 '애국적 인민성'의 부족 여부를 판정하는 또 다른 억압과 통제의 사슬이 되었다.[66] 여기서도 '주체문예'가 설정한 '혁명적문학예술전통'과 '민족문학예술유산'의 서

65) 리동수,『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315쪽.
66) 소월 시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 사실주의'에서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 변화된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김재용,「남북에서의 김기림 평가와 평화통합」,『남북협상과 문인들』, 296~300쪽.

열화 의도가 뚜렷하게 엿보인다. '정전화'의 어떤 원리처럼 그것은 지배계급이 사회와 문화를 통제하는 유력한 방식이자 결코 '문학 유산'이 '혁명 전통'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교활한 위계화의 잘 기획된 실천임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한편 류만의 평론 중 조심스럽게 읽어볼 게 또 하나 있다. 2004년 중국에서 열린 남북문학자대회에서 발표된「소월과 그의 시에 부치는 말 몇 마디」(『실천문학』 2005년 봄호)가 그것이다. 이 글은 독자가 적대국이자 통일 상대이기도 한 남한 국민임을 고려하면 치밀하게 계산된 감춰진 이념의 문장일 수도,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솔직하게 드러낸 내면의 문장일 수도 있다. 물론 소월 시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북한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소월을 보는 시각과 태도는 북한문단의 그것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류만은 먼저 김소월을 당대의 저항시인 이상화, 한용운, 김창술과 냉철하게 대조한다. 특히 이상화를 "초기 프롤레타리아 시문학의 '건강한 거장'"으로 명명한 것과 달리 김소월을 "시대를 따라나서지 못하고 시대에 살면서 사회현실에 무관심"했던 '연약한 시인'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 성장조차 의심되던 소월은 비록 시대와 현실적 문제는 외면했을지라도 자기 고유의 시세계로 '민요풍의 시'를 개척함으로써 문단의 기린아로 단숨에 떠오른다. 류만은 소월에게는 시대와 현실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도 천성적인 것이며, 민요풍의 형식과 내용도 체질화된 시풍이었음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도저히 상용될 수 없는 두 천성이 소월을 1920년대를 개성적으로 빛낸 "연약한 '시 거장'"으로 성숙시킨 핵심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에 기반하여 그는「초혼」이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애수에 젖어 있는 이별과 그리움"에 물들어 있으나, 그것은 이별과 그리움이 참고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에 이른 감정이라는 것, 그래서 두 감정은 오히려 "깨끗하고 순결하며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것, 그에 기반한 '통곡의 격정'이 결국「초혼」을 반증적 의미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전환시켰음을 역설했다. 하

지만 '잃어짐과 그리움의 애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명제로는 소월 시의 '애국주의'를 증거하고, 나아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자주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령을 믿고 따르는 주체적인 공산주의 인간형을 교양하고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류만은 이 문제를 "소월 시에도 '밝음'은 있다"라는 명제로 해소하고자 했다. 그 전제로 "참다운 삶으로 살아가려는 내면적 열정과 지향"이 울울한 '시혼'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 「상쾌한 아침」, 「밭고랑 위에서」를 들면서, 소월이 이 시들을 통해 "이 땅이 우리의 손에서 아름다워질 것"(「상쾌한 아침」)이라는 이상을 더욱 깊이 내면화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류만이 말한 소월의 '밝음'의 정체이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 "근로하는 인간들의 노동에 대한 애착, 노동으로 가꾸려는 삶에 바탕을 두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마음은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소월 애독자로서 류만의 개인적 내면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문예'라는 이념적 · 혁명적 문자 더미 위에 얹어 놓는다면 저 모습은 김일성 세습체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주적 인간형'의 모범이자 모델에 해당된다. 만약에 후자라면 소월 시는 '주체문예'와 '민족문학예술유산'의 깊은 유곡에 아득하게 갇혀버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류만의 '고백'(주장 아닌!)이 개인의 내면으로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집단적 이상의 추구를 잊지 않는 지혜의 언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5. 2000년대 북한의 소월 시와 정본 - 정전화의 미래

2000년의 김대중 정부와 2007년의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세습정권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렇지만 남한의 화해 분위기와 달리 김정일 독재체제는 문학 분야의 경우 군대가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총대철학'에 기반한 '선군(혁명)문학'을 적극 주창했다. 그러니까 창작의 제일 목표를 '붓대'

를 "혁명과 반혁명, 정의와 부정의와의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사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위력(威力)한 무기"로 거머쥐고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충성의 한길"[67]을 밟아가는 것에 둠으로써 '계몽'과 '공포'의 문학적 파시즘을 전면화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소월 시를 읽고 해석하는 작업의 목표도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현재화를 위한 수령 체제의 절대화를 향했을 듯하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그 목표는 이전처럼 류만이 강조한 '자주적 인간'의 교양과 '애국주의'의 감화 정도에 멈춰 서 있는 듯하다. 가령 미래의 북한문학 연구에서 중추가 될 재원을 양성하는 김일성종합대학판『조선문학사』(2006)는 소월 시의 성취를 여전히「진달래꽃」,「금잔디」,「삭주 구성」,「밭고랑 우에서」,「초혼」을 예로 들면서 향토애와 그리움 속의 애국적 감정과 민족적 정서, 나라 잃은 민족의 비애를 민요풍의 미적 형식에 담아낸 것에서 찾았다. 이 평가는 가장 최근의 글로 확인되는 한 연구자의 소월 시 평가, 곧 "가장 조선적인 것, 민족의 정취"를 가장 아름답고 귀중히 여긴 '애국적 감정' 속에서 "민족수난기 애국시인들의 절절한 심정과 뜨거운 정신세계"[68]를 만난다는 문장과 오롯이 겹친다.

그러나 김정일의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서, 또 수령 옹호의 '자주적 인간형' 계몽 및 교양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소월 시의 탁월함에 대한 논의는 김송미의「시집 진달래꽃을 통하여 본 소월 시의 향토적 특성」[69]에 가장 뚜렷하다. 이 글은 첫째, 1924년 도쿄에서의 중도 귀국 원인으로 관동대진재를 분명히 밝힌 점, 둘째, 김정일의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통탄하는 애수와 비애에 찬 작품도 있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정서를 담은 작품도 있"다는 어록에 대한 예시로 아예 시집『진달래꽃』을 들면서 거기서 "정갈하고 순결하며 진달래꽃잎같이 열렬한 그의 조국애, 향토애가 그대로 노래되고 있"다고 명시한 점, 셋째, 7.5조 및 그 변주 율격을 단순

67) 박춘택,「우리 당의 붓대철학과 작가의 시대적 사명」,『조선문학』2005년 10월호, 5~7쪽.
68) 류병관,「향토시인 김소월의 창작세계를 들여다보며」,『조선문학』2012년 제3호, 79쪽.
69) 김송미,「시집『진달래꽃』을 통하여 본 소월 시의 향토적 특성」,『조선문학』2009년 1호, 74~76쪽.

한 시적 기교나 수법이 아니라 "소월의 향토시에 독특하고 민족적인 운율을 더 잘 살릴 수 있게" 한 장치로, 또한「진달래꽃」을 예로 들며 아름다운 우리말-고유어(방언과 고어 포함)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시작품들의 '민족적인 향취'를 한층 돋구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1920년대 시문학의 '민족적 성격'과 '근대적 특성'의 강조, 자유시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호평도 기존의 소월론에서 찾아보기 어렵던 평가들이다. 소월 시가 인민의 가슴에 민족애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준 애국적이며 진보적 작품이라는 더욱 객관화된 서술도 눈에 띈다. 예의 평가들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범주에 맞춰 수행된 것임은 "인민들을 무장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는 혁명적인 시작품들과 대비해 볼 때 명백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의 제시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김송미와 류병관의 글에서 '향토'가 표제어로 등장하면서 작품 예시에 징후적 변화가 엿보인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종합대학판『조선문학사』(2006)는「진달래꽃」,「금잔디」,「삭주 구성」,「밭고랑 우에서」,「초혼」등 기존의 범례를 따름으로써 그것들이 '정전'의 지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알게 했다. 그런데 '향토성'이 전면화된 두 글에서는 김정일이 교시한 인간과 생활을 뜻깊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필두로, 고유한 향토적 정서를 자아내는 산천의 구체적 대상, 인민들에게 친숙해진 전설과 풍속, 인민들의 생활 세부를 다룬 시들이 직접 인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김송미는「금잔디」,「가는 길」,「진달래꽃」을, 류병관은「춘강」,「낭인의 봄」,「봄비」,「오는 봄」을 소월 시의 향토성을 대표하는 시로 예시했다. 하지만 그간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하지만 애국주의와 인민성 성취의 표본으로 상찬되던「초혼」과「산유화」,「접동새」등이 빠져 있는 형국인데, 어찌 된 사연일까.

두 글에서는 애국주의와 민족 해방을 지향하는 소월 시에 대한 해석이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초혼」,「산유화」,「밭고랑 우에서」,「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등에 대한 평가 유보나 절하를 뜻하지는 않을 듯싶다. 이 작품들은 무엇보다 김일성 세습 체제의 핵심적 이데올로그들을 생산하는 김일성종합대학판『조선문학사』에 여전히 실려 있다. 거기

에 두 글은 '선군(혁명)문학'을 열어젖힌 김정일이 강조한 '민족의 고유한 정서', '인간과 생활'과 교호하는 '자연'에 관심을 더했다. 그럼으로써 류병관의 말처럼 "조국의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초불처럼 태워 조국을 노래하고자 했던" 소월 시의 또 다른 측면을 밝게 비추고 있다.

이런 면모는 '향토적 서정'과 기초적 민족어, 토속적이며 전통적인 '정한'의 세계, 민요적 율조와 민중적 정감 등이 강조되는 남한의 소월 시 평가와 형성하는 접점이 더욱 풍요로워짐을 뜻할 수 있다. 만약 이 짐작이 크게 그릇되지 않는다면 이후 남북한 공통의 '정본'이나 '정전' 구성에 대비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아니 조만간 주요 과제로 도둑처럼 들이닥칠지도 모를 남북한 공통 소월 시의 '정본-정본화'를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제외된 소월 시들에 대한 정본화 문제이다. 북한문단은 남한의 『김소월전집』에 1970년대 발굴되어 실린 미발표 유작시 18편 말고도, 『진달래꽃』과 『소월시초』, 미수록 발표 시에서도 무려 50편 이상을 제외했다. 지면 관계상 전체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탈락 사유를 짐작할 수 있는 시 제목을 적어보고, 그 까닭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엄호석, 리동수 등은 소월이 『영대(靈臺)』 동인으로 활동할 때 퇴폐적 색채가 진한 시 몇 편을 발표했다면서 「여자의 냄새」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여기에 몇 편 더해보자면, 남녀의 애정과 욕망 문제, 그와 짝을 이루는 고독과 좌절의 내면이 짙게 표현된 「부부」, 「분(粉)얼굴」, 「안해 몸」, 「님과 벗」, 「열락」, 「촛(燭)불과 마주 앉았으려면」 등이 그나마 '퇴폐' 운운할 만하다. 둘째, 죽음과 종교의 냄새가 짙은지라 '자주적 인간'의 교양과 계몽,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가 될 만한 「생과 사」, 「묵념」,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하다못해 죽어달내가오나 죽으면」, 「신앙」, 「죽으면?」, 「이 한 밤」 등도 설 자리를 박탈당했다. 셋째, 식민지의 고된 현실을 노래하고 있음에도 인민이 물욕이나 자본주의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음 직한 「생(生)과 돈과 사(死)」, 「돈타령」, 「돈과 밥과 맘과 들」도 예외없이 제외되었다. 아무려나 삶의 퇴폐화와 이기적 욕망을 강화하는 사적 욕망(애정), 종교와 죽음 의

식, 돈(자본)은 북한의 『문학대사전』을 빌린다면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과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사상적 도구로서 큰 해독적 작용"을 가할 악마성의 원천이자 기제이므로 영원한 추방과 삭제의 대상으로 엄격히 감시되고 관리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사실 위의 시들은 남북 동시의 '정전'급 시들에 비해 시어와 정서의 세련미, 감정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 당대 현실의 입체적 반영과 성찰 등 여러모로 부족하다. 대신 정련되지 않은 시적 화자의 내면이 때로는 날 것 그대로, 때로는 추상적인 분위기로 거칠게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소월 시의 뛰어난 장점과 성취를 제약하는 내부의 한계로 돌출한다 해서 전집 편찬이나 '정본화'의 대상에서 함부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속담을 빌린다면 오히려 '굽은 소나무'가 있어 소월 시와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정전'급 시들이 더욱 총총 빛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정전(正典)'으로서의 소월 시는 그것이 어떻게 여러 시대와 세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생산 · 보급 · 유통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문화의 도래나 이전과 구분되는 독해 관습과 해석법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재생산되고 재독되며, 국민 또는 독자들에게 다시 교수 · 학습될 수 있는가를 기준[70]으로 추가, 삭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쳐 가며 그 가치성과 역사성이 두터워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덧붙여 둘 게 하나 있다. 비록 소월 시집과 시선에서 모두 빠졌지만, 시적 주제나 분위기가 「옷과 밥과 자유」와 꽤 닮아있는 「나무리벌 노래」가 『1920년대 시선 (2)』의 '김소월' 편에서 배제된 점도 매우 아쉽다. 그 이유로는, "고향산천" "황해도 신재령 나무리벌"은 "물도많고 / 땅좋은곳"으로, "만주봉천(滿洲奉天)은 못살곳"으로 표현되어 있어, 북한과 중국의 친밀한 우의에 누가 될까 제외했다는 정도가 떠오를 뿐이다.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이뤄졌던 남북(문학)교류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문단은 우리

70) 존 길로리, 박찬부 역, 「정전(正典)」, 프랭크 랜트리키아 · 토마스 맥로린 편, 정정호 외 공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311쪽.

쪽, 일본, 중국, 특히 연변 등지를 통해 남한의『김소월전집』을 접해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체제 대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월 시의 올바르며 객관화된 '정본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소월 '시선'이 '전집'으로 새로 편찬되기를 기대한다.[71]

71) 적잖이 긴 글을 읽으면서 심사위원 몇 분께서 첫째, 비평의 선택과 집중 문제, 둘째, 선행 연구와의 북한 자료와 해석의 차이성 문제, 셋째, 남북한 김소월 시의 비교 문제의 최종 과녁에 대해 더욱 뚜렷한 음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주셨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해당 비평에 대해 몇 가지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글은 인문저술지원사업『남북한 공통-시 읽기의 탄생』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체 글은 남북한 김소월론의 공통 요소와 사상적 · 이념적 · 미학적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남북한 통용의 '정전(canon)' 텍스트를 새로 구성하고 제시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 이미 집필되었다. 이후 위 저술에 실리게 될 '김소월론'을 읽게 되면, 첫째, 재차 거론되는 형편의 북한산(産) 김소월론들을 필자도 다시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해야 했던 열악한 자료 상황, 둘째, 북한 특유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을 시대적 · 이념적 변화, 특히 김일성 유일사상 구축 과정이라는 시간축에 따라 살펴보는 이유, 셋째, 그것에 대응되는 남한의 김소월 읽기와 해석, '정전' 구성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글 전체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 제위께 추후 출간될 저술에 대한 독서를 부탁드리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강영미, 『정전 검열 기억』, 지식을만드는지식, 2019.
권영민 편, 『소월탄생 100주년 기념문집: 평양에 핀 진달래꽃』, 통일문학, 2002.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김성수, 『북한문학비평사』, 역락, 2022.
김송미, 「시집 진달래꽃을 통하여 본 소월 시의 향토적 특성」, 『조선문학』 2009년 제1호.
김우철, 「시인 김소월 - 그의 서거 20주년에 제하여」, 『조선문학』 1955년 12월호.
김용직 편, 『김소월전집』,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김재용, 『남북협상파 문인들』, 역사공간, 2024.
류 만 · 리동수,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류 만, 「《1920년대시선》(2)에 대하여」, 『현대조선문학선집 14: 1920년대 시선 (2)』, 문예출판사, 1992.
_____, 「소월과 그의 시에 부치는 말 몇 마디」, 『실천문학』 2005년 봄호.
류희정 편, 『현대조선문학선집 14: 1920년대 시선 (2)』, 문예출판사, 1992.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리정구, 「소월의 시에 대하여」, 『문학예술』 1949년 8월호.
송 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민음사, 1997.
안함광, 「김소월(1903~1935)」, 『조선문학사 (1900~)』(대학용 교재), 연변교육출판사, 1956.
_____, 「김소월」, 『조선문학사 (10) - 1920년대의 문학』,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
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엄호석 편, 『김소월 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오성호, 『북한시의 사적 전개과정』, 경진, 2010.
윤종성 · 윤기덕 · 은종섭 외, 『문예상식』, 문학예술출판사, 1994.
이상숙 외 편, 『북한의 시학 연구 3: 비평 1945~1967』, 소명출판, 2013.
이상숙, 「북한문학 속의 김소월 1」, 『한국학연구』 6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이지순, 「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 - 남북한 문예사전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70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정성무(책임편찬), 『문학대사전 (4)』, 사회과학원, 2000.
정홍교 ·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Ⅰ(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 (하)』, 과학원출판사, 1959.
편집부, 『문학예술사전 (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_____, 『문학대사전』 (1)~(5), 사회과학출판사, 1999~2000.
한중모 ·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현대조선문학선집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시집] (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프랭크 랜트리키아 · 토마스 맥로린 편, 정정호 외 공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1994.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 전경선 역, 『비주얼 미디어로 보는 만주국 - 포스터 · 그림엽서 · 우표』, 소명출판, 2019.

* 신문 및 간단한 연구는 주석으로 대신함.

Kim So-Wol · The Sorrow of People · Patriotism

Choi, Hyun-Sik*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valorization of Kim So-Wol's poetry in North Korea from 1948-2010. It first examines So-Wol's poetry as it was consistently presented to the North Korean literati and people. It then examines the additions made to So-Wol's poetry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literary establishment has focused on the sentiments of hometown love, patriotism, and loss and mourning for the deprivation of the country and the loss of the nim. However, with the authoritarianization of Kim Il-Sung's regime, Kim So-Wol's poetry was rapidly marginalized from 'progressive realism' to an instrumental role for 'subject literature'. As a result, So-Wol's poetry was adjusted in its role and value as a 'national literary and artistic heritage' that was placed under the 'revolutionary literary and artistic tradition' centered on Kim Il-Sung's achievements. This meant that Kim So-Wol's poetry began to be actively mobilized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autonomy posed by the times and life' and 'autonomous human problems'. However, since the 1950s, So-Wol's poetry has continued to be praised for its outstanding portrayal of national sentiments and life under the folk song tradition and rules. This is why "Chohon(Invocation)", "Chindalraekkot(Azalea flower)" and dozens of other poems have never lost their status as 'canon' that writers and people should read.

* Inha University

Key words : Kim So-Wol, the officially certified text, canon, kim il-sung monolithic system, patriotism, the sorrow of people, juche literature

논문투고일 : 2025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25년 2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2월 21일